

포천사회 知識人 ②

대진대학교 배기목 교수

부인터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해야

‘아다지오(침착하고 느리게)’ 템포로 살자

“포천에서 교통은 지옥이다. 출퇴근시간에 송우리에서 축석고개까지 차질이 줄지 않아서... 삼송-송우간 신설도로 공사기간 끝지점이 43번 국도와 만나게 된다. 이곳이 바로 부인터사거리다. 여기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국도는 건설교통부가 관리하고 삼송-송우간 도로는 경기도 관할이다. 그래서 협의가 안된다. 두 기관이 협의하여 포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진대학교 도시공학과 배기목(44·사진) 교수는 포천시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43번 도로는 현재 생활도로와 우회도로의 두 가지 기능이 혼재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내부우회도로를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경북대학에서 소홀음까지미안이라고 우회도로 신설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포천시와 같은 중소도시에서의 전문가 역할은 주민들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역발전을 위한 대화를 통해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언론과 의회,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중재역할에 나서야 한다. 즉 주민과 전문가들 사이의 가교역할을 맡아 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배 교수는 니혼(일본)대학교 대학원에서 ‘최적 버스노선 선정기법에 관한 연구’(1992)를 석사학위논문으로 ‘도시의 도로망 발전에 관한 연구’(1994)를 박사학위논문으로 발표했다.

부산 선암초등학교, 부산 진중학교, 부산 가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동아대학교 도시계획학과를 졸업한 배 교수는 국립장학생으로 일본 유학길에 오른 것이다.

일본유학을 하게 된 것은 도시교통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도시형성 또한 비슷하여 연구한 학문을 바로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배 교수는 유학기간 동안 우리조상들은 일제치하에서 두들겨 맞으며 일본어를 배웠는데 유학생으로서 스스로 일본어를 배우고자 한다는 사실에 스텔레 마가 있었다고 한다. 이같은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은 그들보다 더 유창하게 말을 할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한 결과 유창한 일본어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실제로 2004년 포천시방문단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통역을 맡아 외교성과를 거두는데 큰 몫을 해내기도 했다.

배 교수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겉고 싶은 도시’를 건설하는 게 꿈이다. 특히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는 물론 버스나 지하철 등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있다.

실제로 배 교수는 현재 서울시 버스노선 계획 추진에 참여하기도 했다. 포천의 버스노선에 대해 배 교수는 “43번, 47번 등 큰 도로와 연결시키는 교통수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광명마을버스가 이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맡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다. 그래서 50%씩 투자하여 설치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

포천시는 전국의 교통문화지수가 측정에서 꼴지에서 두 번째다. 이는 정지선 지키기, 교차로 무단횡단, 불법주차, 버스 교통흐름 등 다양하게 측정한다.

배 교수는 인간중심적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행정+사람이 중심이 된 교통환경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작은 것을 소중히 하자’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2006년도에는 ‘아다지오(침착하고 느리게)’ 템포로 노력하자고 할 계획이다.

대진대학교 도시공학과는 사람이 사는 공간을 다루는 학문을 연구하는 학과이며 울

해는 학생들의 택지개발지구 등 현장답사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배 교수는 포천시민들에게 원래 우리 모습대로 돌아가자고 당부한다. 우리의 여건과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씩 침착하고 느리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한다.

배기목 교수는 일본 와세다 대학교 객원교수, 미국 조지아 공업대학교 객원교수, 태국 AIT(아시아공과대학교) 교통, 환경공학 기술위원회 전문위원, 건교부 중앙교통정책 심의위원, 지속가능도시대상 평가위원, 서울특별시 버스개혁시민회의 위원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위원,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감사,(사)도시연대 이사 등으로 활동중이다. 수상실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현실화방안을 위한 조사연구로 서울시 교통문화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양주시 발전계획 공모전에서 양주시 장기발전과제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처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배 교수의 주요논문 및 주요저서는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자전거 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1999.2) ▶버스운행관리 및 승승전락에 관한 연구(한국항공학회, 1999.12) ▶도시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활성화 방안(녹색교통포럼, 2000.3) ▶남북환경시대의 지속가능한 경기북부를 위한 종합교통체계의 구축(경기환경운동연합, 2000.10) ▶새로운 도시방재 대책 수립을 위한 일 고찰(방재정보제8호.2001.4)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위한 녹색교통체계 구축방안(토지와 기술 2004년2호) ▶운전자 통행행태를 고려한 보행로 인센티브 제도에 관한 고찰(교통정책과 기술 제2권2호) ▶도로기하구조 설계요소별 교통사고 예측모형에 관한 연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2005.11) ▶친환경에너지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위한 진해시의 자전거 정책(제4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2005.11) ▶교통시범도시 구축에 관한 연구(대진대 논총, 2005) ▶21세기의 지방(탐포린) ▶20세기 달고 튀어넘기(남출판사) ▶교차로개선의 키 포인트(일본교통공학연구회)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시민단체가 앞장서고 전문가는 뒤에서 밀어주고



포천축협 조합장 당선자 양기원

포천생산 축산물 전국 최고 브랜드 육성

지난 24일 실시된 포천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양기원 현 축협장이 이한인 후보를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5개 선거구로 나누어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1천939명 가운데 1천483명이 투표에 참여해 76.48%의 투표율을 보였다. 개표결과 양기원 후보 813표, 이한인 후보 667표, 무표 3표 등으로 양 후보가 146표 차이로 당선됐다.

양기원 축협장 당선자를 만나 포천축협의 현안 문제 및 해결방안, 포천축협의 지역사회 참여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육가공 사업실시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포천에서는 축산물 많이 생산되는데 비해 지역 소비량은 많지 않다. 축산농가는 생산에만 전력을 다하고 축협에서 가공과 유통판매를 맡아 할 수 있도록 유통

▶당선 소감은

먼저 성원해 준 축산인들께 감사 드린다. 축산인들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축협이 발전하고 축산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포천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축협을 운영하면서 시정적으로 있었지만 조합의 본연 업무에 충실하려고 매우 노력했다. 축협의 본연의 업무는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다.

▶축협장 선거과정에서 느낀 점은

포천축협은 포천시 기관이다 보니 선거구가 광역화되어 있다.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축협장 선거가 있었던 만큼 축협선전이나 각종 투머들이 많았다. 축협장 선거에는 조합원들만 참여해야 하

일부 정치인 축협장 선거 개입 혼탁선거 부추겨 축협 현실감안 조합원 의견수렴 운영의 묘 살릴 터

는데 일부 정치인들이 개입했던 흔적들이 많다.

포천축협 조합원 중에는 양축농가(현재 축산업 종사자)와 무축농가(현재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가 있다. 과거 조합원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무축농가들을 많이 영입했는데 이들은 조합에 대한 애정이 낮다. 이번 선거에서는 양축농가보다 무축농가 조합원들이 더 많이 참여했다. 이제 조합원들도 축협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선거운동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1회성 연설이나 공보물을 가지고는 진정한 축협을 선출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정책토론회를 각 지역별로 나누어 실시해야 바람선거를 방지하고 조합의 진정한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축협 조합원들의 선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책토론회를 여러번 개최해야 한다.

▶포천축협의 3대 현안문제는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신용사업이다. 예금과 대출은 4년전 780억원이었던 것이 2005년12월 현재 1천320억원으로 급신장 했다.

그러나 축협 대출금리는 시중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조합원들에게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하나의 지원책이다. 이같은 대출금리를 인하하려면 신용사업량을 늘려야 가능하다. 앞으로 인기동안 신용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경제사업이다. 신규 농가전설링 지원사업이나 가축계약수익사 운영, 광역단위 방역실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포천축협은 각종 사업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 할 것이다.

셋째, 직원의식 전환이다.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해 직원의 능력을 평가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할 생각이다. 아울러 연봉제를 시행해 능력이 있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직원들로부터는 명예퇴직 신청도 받을 생각이다.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는 없을 것이며,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에게는 형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다.

▶포천축협의 지역사회 참여방안은

포천축협은 아직도 부실채권이 많고 대손충당금 비축이 낮다. 현재는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앞으로는 축산물 시사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할 생각이다. 특히 현재 일부 시행하고는 있지만 관내 독거노인돌기, 장애인돌기, 빈곤층 돌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계획이다.

▶축산인들에게 부탁할 사항은

이번 선거에서 지지해 준 축산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지난 4년 동안 조합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축협에 대한 책임감이 많다. 앞으로 축협을 운영하면서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이한인씨의 자문을 받을 것이다. 양축농가와 무축농가로 구분되어 있는 축협의 현실을 감안해 조합과 조합원이 살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이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신속·정확·친절한 운·배송 전문

번개 퀵 서비스

오토바이 차량 항시대기 541-3842-4

번개 퀵 서비스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고객맞춤형 서비스 지향



1톤차량 : 20대



오토바이 : 4대

번개 퀵 서비스 ◆ 대표: 김용구 ◆ 위치: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84-2 ◆ 문의·예약: (031) 541-3842 ~ 4